



“농민 의견 무시하고 우리 운명을 결정?”

WHO 담배규제협약에서 배제된 담배경작농민들 울분

170 개국 정부관료가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총회가 11 월 12 일(월) 서울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세계 담배경작농민들은 “정작 규제를 받게 될 담배경작인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건당국관료들이 마음대로 규제안을 짜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FCTC 5 차 당사국 총회(CoP5) 에서는 ‘전세계 담배경작면적을 강제로 줄여 장기적으로 담배 농가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의 채택 여부가 채택 될 예정이다.

FCTC 총회 개최에 앞서 방한한 안토니오 아브룬호사(Antonio Abrunhosa) 국제 담배경작자 협회(International Tobacco Growers' Association, 이하 ITGA) 대표는 오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경작자들과 함께 FCTC 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FCTC 가 한국의 담배경작 산업종사자 2 만 5,000 여 명을 비롯하여, 전세계 3,000 만 농민들이 평생 일궈온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게 될 담배경작농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배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경작면적을 죽이도록 하는 규제는 담배규제 옹호론자조차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반면 담배경작농민이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이끌거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FCTC 비준국들의 담배경작을 금지시킨다고 하여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이라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국내 담배경작농민을 대표하는 연합중앙회 (KTGO - 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의 이해권 회장은 “FCTC 를 통하여 담배 경작이 제한된다면 FCTC 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서 더 많은 담배가 재배될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FCTC 에 비준한 나라의 농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FCTC 의 터무니없는 규제 안에 맞서 힘 없는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사국 총회에 대한 내용 및 17, 18 조항에 대한 영문 자료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protectfarmers.tobaccolleaf.org/the-issue.aspx>

[자료 문의] 박성윤 ITGA 한국 언론 담당 (010-2999-1154, itgakorea@gmail.com)